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점심은 '여선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점심은 박숙이 권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다음 주일 2부 낮예배 대표기도는 이희문 집사님입니다.
3. '제직 및 사역자 세미나'는 다음 주일(3월 10일) 점심 식사 후에 가집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일 낮예배는 1부2부 오전 11시에 통합예배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직과 각 위원회 위원장 교사 등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하늘문의 만나> 3월호가 출간되어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셔서 묵상용-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새가족양육반' 교육(4주)이 3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새가족 및 혹 기존성도 가운데 신앙점검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김전희 목사님(010-7900-7179)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지난 주에 발족한 '교회창립 10주년 행사를 위한 준비위원회' 첫 모임을 점심식사 후에 잠깐 본당에서 가졌습니다. 준비위원들은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평남노회 강부시찰 총회가 3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주에 소재한 감동의 교회(권범수 목사시무)에서 개최됩니다. 당회원(당회장, 시무장로) 모두 참석합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3월 3일	3월 10일	3월 17일	3월 24일
예배기도(2부)	인도자	이희문 집사	김수환 장로	신태식 장로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여선교회	박숙이 권사 가정	유숙정 권사 가정	차인숙 집사 가정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
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티(힘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행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운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경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인도자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인도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마무리기도	허영진 목사

성례전

권면	집례자
제정의 말씀	집례자
성찬참여	다같이
성찬후기도	집례자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하기를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구은세 목사

경배와 찬양	다같이
여는기도	인도자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구은세 목사
말씀선포	구은세 목사
기도	김진규 전도사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찬송	다같이
축도	구은세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마 16:5-12 '조심해야 할 누룩'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하늘문인만> 말씀묵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거듭남의 진통(陣痛)

봄기운을 시샘하듯 막바지 추위가 매섭습니다. 사순절이란 맛 물려서일까요? 순환되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맛보는 흥겨움이 있어야 할 텐데 여전한 추위에 몸도 마음도 무겁습니다. 필립 안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는 자신의 민족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태어날 시간과 장소 또한 선택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날 장소와 시기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겨운 상황 속에서 오셨는지, 인간이 가진 인식의 한계로는 알 수 없는 범주입니다. 물론 주님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시점과 장소는 책박하기 이를 데 없었기에 다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은 그저 날로 먹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 속에는 결코 공짜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철저하십니다. 그러다보면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한편 세상적인 논리로 본다면, '하면 된다.'는 공식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이죠. 하지만 성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음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철저히 알게 하십니다. 즉, 성도는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 응답이 대부분 더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참고 견디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됨이 응답된 것보다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저런 힘겨운 경험들로 인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필수과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계속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시며, 세상에 두는 소망보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는, 보다 고상한 고민을 갖고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환경에 우겨 땀을 당하는 성도에겐 늘 소망의 표상이 되어 주시고, 갯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내 뜻 보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도록 이끄십니다. 단연컨대, 신앙의 여정은 이처럼 고상한 인생이 되도록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Written by 허영진